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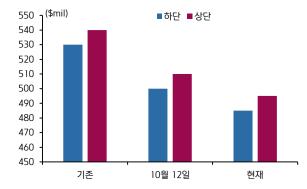
의료기기 Analyst 신민수 alstn0527@kiwoom,com

비올 (335890)

비올때또노젓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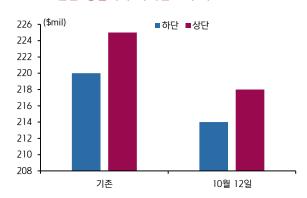
- ◎ 미국 마이크로 니들 RF 업체 InMode, '23년 연간 가이던스 2차 하향 조정
- 〉〉 한국 시간 12월 6일 밤, 미국 마이크로 니들 RF 업체 InMode의 '23년 연간 가이던스 2차 하향 조정 발표
- >> 지난 10월 12일 하향 조정 이후 **가이던스를 다시 내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어려운 매크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미** 국 지역 등의 플랫폼 판매 둔화가 발생하였기 때문
- >> `23년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: 기존 \$530M~\$540M→ 10월 12일 \$500M~\$510M→ 현재 \$485M~\$495M
- → 기존 가이던스 대비 약 -8%, 10월 12일 대비 약 -3% 하향 조정
-)) '23년 연간 non-GAAP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: 83% ~ 85% 전망 유지
- >> `23년 연간 non-GAAP 영업이익 가이던스: 기존 \$220M ~ \$225M → 현재 \$214M ~ \$218M
- ightarrow 기존 가이던스 대비 약 -3% 하향 조정,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44% 유지

InMode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 추이



자료: InMo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InMode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 추이



자료: InMo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⟩〉 InMode의 '23년 1분기 ~ 3분기 매출액을 '23년 연간 가이던스에서 제외하면 예상되는 '23년 4분기 매출액은 약 \$125M(YoY -6.7%, QoQ +1.6%)

InMode 분기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



주) 4Q23E 매출액은 연간 가이던스에서 앞선 분기 매출액의 합을 제외한 것 자료: InMo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◎ InMode 가이던스 2차 하향은 비올에게 오히려 좋은 호재

- >> InMode는 고가의 프리미엄 장비를 판매하고 있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리스 형태로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의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
- → 고객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고금리 상황에서도 이자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겠으나, 수요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줄어들면서 프리미엄 라인 제품에 타격이 있다고 해석 가능
- → InMode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가성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, 이미 미국에서 장비와 소모품 판매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전망됨
- >> 지난 10월 12일, InMode의 '23년 가이던스 1차 하향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시가총액 낙폭은 -14% 수준으로 제한되었고, 이후 3Q23 호실적 등으로 인해 +36% 상승하는 모습 시현한 바 있음

비올 시가총액 추이 분석



자료: FnGuide, InMo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2월 6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 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